

평화와 사랑의 화신

김 정 만
(서울 대공원 진료과장)

사람이 살아가는데 특정한 인간을 선택하여 타인보다 열애하는 것을 참사랑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랑은 정에 굶주린 욕구충족을 성취하기위해 목적했던 열매의 결실을 얻으려고 '사랑'이라는 묘목을 접목시켜 결실을 얻는 인위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람보다 몇 천 배나 지혜롭지 못한 왕관비둘기들은 한정된 지역에서 많지않은 무리 중 슬기롭고 자비스러운 동료간의 봉사와 헌신속에 암수간의 사랑의 씨앗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 온 무리의 축복을 받으며 자연스런 생활속에서 짝이 지어진다.

비둘기들은 하늘이 접지해 준 자연섭리의 소산인 듯 질투, 시기, 모함, 모략은 물론 동료간에 살생

도 없이 평화스런 생활을 영위하며 회생정신과 협동심이 자연스럽게 조화되어 만사가 무리없이 해결되는 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새가 바로 왕관비둘기 무리의 생활상인 것이다.

왕관비둘기는 비둘기목 비둘기과에서 가장 큰 몸체로서 몸통의 길이는 22~30cm에 몸무게는 0.8kg~1.4kg까지 나간다.

일반 새들처럼 하루종일 하늘을 날아다니며 만사를 해결하며 살아가는 것 보다 주로 땅에서 걸어다니며 주어진 여건을 심사숙고하여 차근차근 해결하며 매사를 동료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해결해서 주위에 불안감을 조성하지 않는 것을 당연한 일로 알고 살아간다.

땅바닥에서 오손도손 생

활하다가 불의에 맹수의 기습이나 타동물이 가까이 오며는 우선 공격 자세보다는 지형지물과 자연의 보호색을 최대한 이용하여 자취를 눈감쌀할 사이 감추어 버리는 것을 특기로 삼으며 만부득이 맹수가 눈앞에서 살생을 시도코자 할 때는 자기 하나의 희생보다 동료들에게 위험신호를 알려 주기 위해 평상시 볼 수 없는 경망한 태도로 날개를 펴서 푸드덕거리며 주위를 소란스럽게하여 동료들에게 위험을 알린 후 하늘 높이 날아서 피신하는데 이때 맹수가 공격해오는 속도에 반비례하여 자기의 동료들이 없다는 것을 맹수에게 보이기 위한 템포 빠른 속도로 하늘로 비상하여 위기를 모면한다. 물론 자기 무리를 철두철미하게 보호

하며 자기만이 희생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새이기도 하다.

자연의 생태계에서 타동물에 의한 피해는 적으나 구라과 여성들의 허영과 사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장식용으로 왕관비둘기 머리위의 호화스런 깃털을 머리깃과 옷깃의 장식품으로 사용키 위해 마구잡이로 남획하여 멸종위기에 놓인 것을 세계동물자연보호연맹의 맹렬한 항의와 왕관비둘기의 깃털을 애호하는 여성들의 사치에 대한 언론기관의 신랄한 비판은 마침내 깃털을 사용하는 사치풍조를 바꾸게됨으로써 왕관비둘기는 멸종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18~19세기 초까지 유럽지역에서는 왕족과 귀족들의 허영심 많은 부인들이 자기과시를 위해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의상과 조류의 깃털을 사용한 몸치장으로 인하여 일부 동물이 멸종되었거나 왕관비둘기처럼 멸종의 위기를 겪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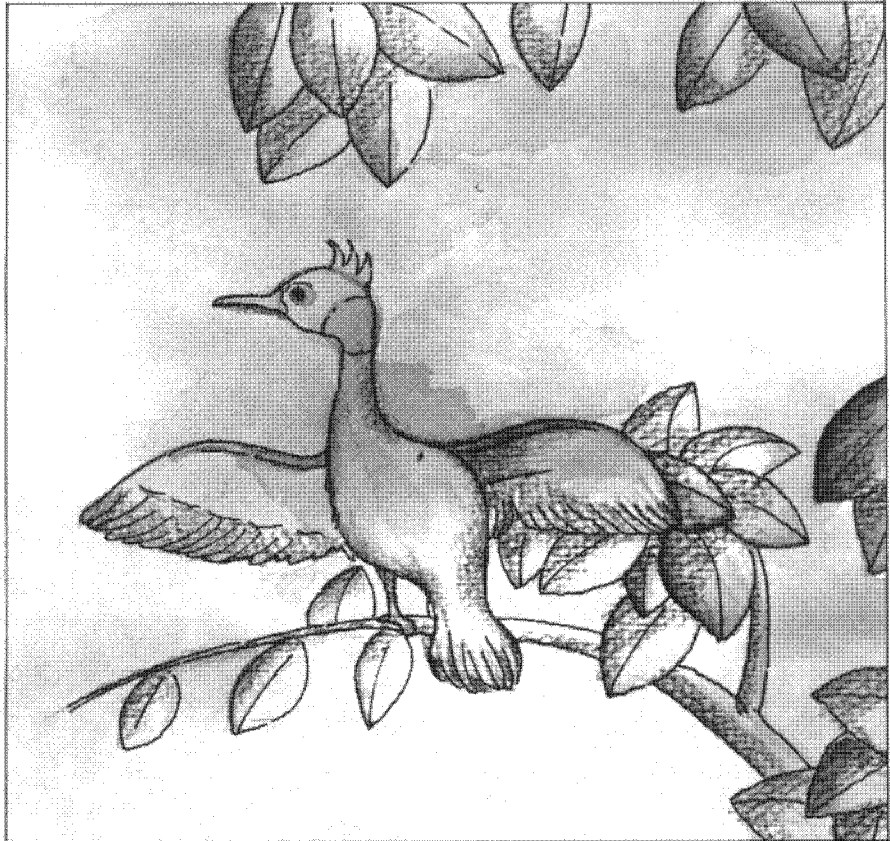
왕관비둘기는 뉴기니아의 산림이 우거진 곳에서 각종 진귀한 식물의 잎과 순, 씨앗 등을 즐겨 먹고 살며 번식기가 가까와지면 곤충과 작은 동물까지 잡아먹고 체력을 축적할

줄도 아는 짐승이다.

왕관비둘기는 식성이 비교적 까다로운편이어서 각종 과일의 열매들이 완숙하게 되면 길고 뽕죽한 주둥이로 쪼아서 감미한 후 구미에 당길 때에는 특유한 음성의 '바리톤'으로 구구대며 우리들의 진수성찬인 음식이 여기 있다는 소리를 지른다. 바로 온무리가 모여들면 과일을 쪼아먹는 시범교육을 시켜 그 과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장소를 이동치않고 먹어치우는 물론 씨까지 뱃속에 넣은 후 이동하여 자기들이 좋아하는 열매의 식물씨가 섞인 배설물은 연약한 발로 흙을 파서 덮어 줌으로써 각종 맛있는 식물들의 자연보식과 각종 과일 나무들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일등공신 같은 역할까지 해내는 대표적인 새이다.

왕관비둘기는 뉴기니아의 서식지에서 사방 15~20km² 이내에만 살지 그곳을 벗어나면 불안해하며 사력을 다해서 귀가하는 본능을 갖고있는 대표적인 텃새이다.

왕관비둘기는 땅에서 주로 살면서 건조기에는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곳을 찾아다니며 사는 것이 특징이고 자기가 살고있는 고장에서 산불이 발생하



면 제일 먼저 감지한 후 온 무리의 새들에게 산불이 발생하였으니 대피하라는 신호로 주위의 가장 큰 나무 꼭대기에 올라가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서 자기 동료와 다른 새들까지 대피시켜 주는 소방관 역할까지 해 내는 짐승이다.

그러기 때문에 뉴기니아의 산중 소방관하면 서슴없이 왕관비둘기를 손꼽고 있다.

왕관비둘기는 생후 1년이 지나면 완전히 성수가 되며 온 무리의 성원속에

자연히 짝이 지어지면 암수 공히 둥지를 만든 후 열렬한 사랑과 애무 끝에 신방을 차린 뒤 3~4일이 지나면 암놈은 단한개의 알을 낳은후 부터는꼬리를 완전히 감춘 후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포란에만 신경을 쓴다.

지금까지 의종계 지내던 암놈은 꼬리 감춤과 동시에 주둥이로 둥지에 접근하는 수놈을 쪼아댄다.

그때서야 비로소 철이 든 수놈은 알을 낳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아빠의 의적

한 행동을 취하게된다. 이때부터는 28~29일간 암수 의종계 교대로 포란하여 새끼를 낳 후 일년 가까이 어미와 애비새는 교대로 보호하며 철두철미한 가정교육을 시킨다. 그리하여 성조가 되면 엄마와 아빠는 신랑감을 눈여겨 두었다가 접근 시켜 주는 중매쟁이 역할까지 하는 새이다.

자연계의 수명은 15~20년을 산다. (11)